

‘추억’ 묻은 바다는 때를 기다린다

[제주잠녀] 100.<2부>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71)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등록 : 2008년 01월 06일 (일) 16:18:12
최종수정 : 2008년 01월 06일 (일) 16:18:12

고미 기자 ✉ popmee@jemin.com

칼바람이 부는 겨울 바다지만 제주의 그 곳에는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정겹다.

바다 어디든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 쉽게 발을 떼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 바다에 인적이 끊긴다는 얘기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보기 드문 ‘소금빌레’가 펼쳐진 구엄 바다는 이전의 웅성거림을 가슴에 안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옛날의 영광까지는 아니지만 향수를 끄집어낼 언젠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 구엄리 소금빌레(들염전)

△손 놓은지 오래된 바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거의 작업을 못했지. 물에 드는 잠녀도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인데...”

조두현 구엄리 어촌계장(71)은 아쉬움 가득한 목소리로 바다 이야기를 시작했다.

전체 어촌계원이 98명, 이중 여성이 73명이나 되지만 실제 작업을 하는 잠녀는 10명이 채 안된다. 그것도 60대 이상이 7명이나 된다.

“한참 미역을 조물 때 얘기지 지금은 물에 들지 않고 밭에 간다”며 “말이 좋아 10명이지 실제 소라나 전복 작업을 하는 잠녀는 채 4~5명이 안된다”고 했다. 물건이 시원치 않으니 마늘이며 시금치, 배추 등 1년 중 어느 하루 쉴 때가 없는 밭작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구업 어촌계에서 지난해 작업한 소라는 1000kg이 채 안된다. 그것도 상반기에 조금 작업을 했을 뿐이지 하반기 작업량은 '0'에 가깝다.

소금빌레 서쪽 '산밭알'에 2006년과 2007년 전복 종패를 뿌렸지만 그 결과는 아직 미지수다.

“전복을 먹이로 하는 문어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도 있고 간혹 전복이 보인다는 말도 한다”며 실낱같은 희망을 놓지 않고 있지만 역시나 전복을 지키는 일은 쉽지가 않다.

“잠녀 수가 많지 않아 절반 이상 내가 지키고 있는 셈”이라며 한숨을 토해내듯 말을 쏟아낸다.

일주일 쉬고 다시 일주일을 작업하는 형태로 물질을 하고 있지만 임대 형식으로 운영하는 잠녀식당이 유일한 수입원이다.

하천(수산천)이 있는데다 경관 좋은 바닷가에는 어김없이 자리를 잡고 들어선 펜션·민박의 생활하수는 바다 속을 허영게 만들었다.

“매월읍에서는 갯녹음이 가장 먼저 생긴 곳이 이 곳이다”며 “예전 미역 작업 등을 했을 때는 가는 곳마다 불턱이 있었지만 지금은 갯녹음이 심해 뭐하나 건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소금 만드는 애기도 재미있다. 거북 등처럼 틈이 나있는 곳에 독(두렁)을 쌓아 ‘물아찌는 돌(증발지·호갱)이라고도 부름)’을 만들고 직접 소금을 만들기도 했고, 여기서 소금기가 20% 안팎인 ‘곤물’을 추고, 겨울에는 솔에 이것을 달여 소금을 만들었다.

물아찌는돌에서 만든 소금은 돌소금, 솔에 달여 만든 소금은 ‘숯(삶)은 소금’이라고 불렀다.

이곳에서 만든 돌소금 등은 품질이 좋기로 유명했고 거의 잡곡쌀과 물물교환이 이뤄졌다.

개인소유가 인정됐던 소금밭은 물의 밭에 비해 값도 훨씬 비쌌다. 많게는 330.58㎡까지 소유했던 소금밭은 대대로 ‘큰 딸’에게 물려주던 풍습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기억뿐이다.

1990년대 중반 이곳을 자연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복원사업 등이 진행됐지만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다.

소금 만드는 과정 등을 설명할 사람도 부족했거니와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어 유아무야 사라져버렸다.

올해로 16년째 어촌계를 이끌고 있는 조 어촌계장은 “지금도 그곳만 보면 아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소금 작업을 기억하는 사람도 한사람 두사람 세상을 떠나고, 이제 이곳을 지나는 수학여행단에게 소금밭을 설명해줄 사람도 없을 정도다.

조 어촌계장은 “어촌체험마을이다 뭐다 하며 말들은 많지만 여기는 한번 실패했던 곳이라 누구하나 관심이 없다”며 “정말 아까운 자연 문화자원이 묻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언젠가’를 기다리는 바다는 기다림으로 빛이 난다. 잘 정비된 해안도로 때문만은 아니다. 정해진 것은 없지만 앞으로에 대한 기약만큼 바다를 빛나게 하는 것은 없다. 그 빛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바다에 기대 사는 사람들뿐. 그 바다에는 여전히 바람이 분다.

▲특별취재반=김형훈 인터넷팀장·김대생 인터넷팀 차장·고 미 사회경제팀 차장

‘밭로 달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제주시 외·내도동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 (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